

# 미래농업 짚어질 학생 인재 발굴 '오픈캠퍼스' 성황

### aT·농어촌 공사 등 6개 기관 참여...고교·대학생 등 210명 수료 대학생 설문 만족도 5점 만점에 4.5...“선배와의 대화 가장 좋아”

올해 3회를 맞은 오픈캠퍼스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이 고교생 59명과 대학생 151명 등 수료생 210명을 배출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농업 관련 기관·공기업 4곳은 대학생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농산업계 열 고교생도 농업 인재로 키워내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전남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픈캠퍼스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 과정' 수료생은 151명이다.

오픈캠퍼스는 농업 분야 기관들이 협업체 지역 대학생에게 농업관련 교육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업정책부터 스마트농업, 농수산물 수출, 농식품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기관의 교육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게 했다.

참가 학생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수료를 하면 학점을 얻게 된다.

오픈캠퍼스 참여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혁신도시 4개 기관과 전남농업기술원, 나주시 등 6곳이다.

오픈캠퍼스에는 광주·전남 5개 대학교 3~4학년 재학생들이 참가한다.

지난 2019년 40명을 시작으로 2020년 44명, 올해 67명 등 총 151명의 대학생이 오픈캠퍼스를 거쳤다.

학교별로 보면 전남대 76명, 조선대 48명, 동신대 12명, 목포대 8명, 순천대 7명 등이 참가했다.

올해 대학생 오픈캠퍼스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혁신도시 기관들은 취업설명회와 기관 소개, 사업특강, 외부 채용특강 등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혁신도시 직원들과 '선배와 시간'을 갖고 조별과제 활동, 모의면접 등에 참여했다.

올해 수료 대학생에 대상으로 '오픈캠퍼스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참가자들은 5점 만점에 4.5

점의 종합만족도 점수를 줬다.

오픈캠퍼스 일정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과정(복수응답)으로는 '선배와 대화'를 꼽았다. 이어 취업설명회, 주요사업 특강, 현장 특강, 농정 특강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어촌공사, 농림식품기



나주 혁신도시 농업 관련 3개 기관은 전남지역 농업계고 9곳 학생을 대상으로 이달 1일까지 사흘 동안 '오픈캠퍼스' 교육을 진행했다. (aT 제공)

술기획평가원 등 나주 혁신도시 3개 기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오픈캠퍼스'를 열었다.

'고교 오픈캠퍼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남생명과학고 등 전남지역 농업계열 9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펼쳤으며, 올해는 전년(20명)보다 19명 많은 39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혁신도시 기관들과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농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의 취업 및 창업역량 교육을 제공했다.

참가 고교는 지난해 5개에서 올해 9개로 늘었다. 올해는 호남원예고(18명)와 전남생명과학고(17명), 전남자연과학고(9명), 고흥산업과학고(4명) 등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다. 고교생들은 창업 선배인 김미현 수다 협동조합 대표 강의를 듣고 청년창업농과 대화를 나누는 등 사흘 일정을 소화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우리 농업의 미래이자 대안이 될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라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오픈캠퍼스 과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홀몸 어르신택 초인종 달아주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력거래소는 5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실천사업'의 하나로, 해를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순천 고령가구 20곳에 인터폰(통화장치)을 설치하는 '홀몸 어르신택 초인종 달아주기'를 벌였다. (인터넷진흥원 제공)

## 전력거래소, 하반기 공채 22명 '블라인드 채용'

### 15일까지 지원서 접수 지역 인재 채용 1명 포함

전력거래소가 22명 규모 하반기 채용모집을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부문은 신입직 13명, 경력 및 전문직 7명, 공무원 2명 등이다.

경력 및 전문직의 세부 모집인원은 IT개발자(기술) 2명, 스마트그리드 기획개발(사무) 2명, 스마트그리드 융합기술(기술) 2명, 전력계통(기술/박사) 1명이다. 공무원에서는 사무보조(업무

지원) 2명을 뽑는다.

이전지역 인재 우선 채용 1명을 포함해 보훈대상자, 장애인 채용 할당은 총 6명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에 이어 필기전형, 실무진 면접전형, 경영진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15일 오후 2시까지 전력거래소 채용 홈페이지(kpx.recruiter.co.kr)에 내면 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의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이번 공개채용에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감사 전문성 강화' 사학연금-한국전력 감사 업무 협약

### 교차 감사·청렴문화 개선 등 협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전력이 감사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달 30일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감사 업무교류 지원 협약(MOU)'을 비대면 방식으로 맺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들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협력 통로 확산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활동 때 전문분야 인재 교류 ▲ESG경영 지원을 위한 감사활동 상호협력 ▲청렴 문화 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자체 감사활동과 반부패·청렴·갑질예방 업무 전반에 대한 교류를 통해 감사 전문성과 청렴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학연금 감사실은 예방감사 강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체계와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류준열 사학연금 상임감사는 "두 기관의 업무 분야가 다르더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기관의 장점을 살려 상호협력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PS '대학생 서포터즈' 16명 활동 마무리

### '에너지 절약 캠페인' 석달 간 진행

한전KPS의 7번째 '대학생 서포터즈' 16명이 최근 석 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전KPS는 지난 30일 나주 본사에서 "2021년 한전KPS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었다.

광주·전남 대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16명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여름 석 달 동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300

여 건의 홍보물을 제작해 게시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관련 홍보물 100여 건을 올리기도 했다.

또 한전KPS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전력정비 업무의 중요성 등을 동영상에 담아 알렸다.

한전KPS는 서포터즈들이 제안한 자유롭고 참신한 생각을 회사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시작한 대학생 서포터즈에는 전남대·조선대·호남대·목포대·순천대 등 광주·전남 대학생 총 136명이 활동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